

(사)행복한아침독서는 '책과 도서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한 곳이 되기를 꿈꾸는 독서운동과 도서관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행복한아침독서가 펴내는 『동네책방동네도서관』은 책과 서점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책 생태계를 꿈꾸며 소통하고 연대하는 나눔의 마당입니다.

홀로, 함께 예술로 만나 조화를 이루는 예술공동체를 찾아서

봄의 화려가 꽃으로 지고 초록이 아우성이예요. 책으로 지은 이곳 책마을해리를 둘러싼 바다로부터 산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가쁜 숨으로 하루를 풀어내고 있어요. 무언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마을 복판에서 새로운 마을의 탄생을 알리는 책을 만났어요.

『예술마을의 탄생』은 한예종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와 유사원 겸임교수가 예술과 마을 사이 절묘한 합을 이뤄 함께 펴낸 책이에요. 답사, 인터뷰에서 최종 원고 작성까지 공동 작업으로 이뤄진 결과물이지만 그 안에서 다른 글의 결을 알아차리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터 잡은 책마을해리는 책 만드는 마을이라는 뚜렷한 방향이 있어요. 저자들은 예술마을을 어떤 갈래로 매겼을까요. 예술마을이 갖는 정체성과 역사성, 창의성, 공동체성이예요. 정체성은 예술과 마을, 예술가와 마을 주민과의 관계를 말해요. 어느 편이 어느 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요. “예술인 스스로 마을 주민이 되고 마을 주민 스스로가 예술가가 될 때” 예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것으로요. 역사성은 급조가 아닌 오랜 세월을 지켜로 쌓아온 “전통문화유산과 예술마을로서 기원과 서사”를 챙겨보는 것이예요. 창의성은 유명 예술인이 태어나서거나 화려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만이 아닌 “마을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공동체성은 “아무리 위대한 예술인이더라도 예술인 혼자 사는 곳을 예술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마을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는 부분을 공유하며 저마다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정신”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살피주어요.

저자들은 강원 강릉에서 제주 하례리까지 우리나라 열세 곳 예술공동체를 찾아 종횡 누볐어요. ‘그렇지! 이 마을이 빠질 수 없지’ 하는 마을도 있고, ‘어쩌면! 이런 마을이 있었네’ 낯선 마을도 있어요. 분류마다 마음 포근해지는 마을을 짚어볼게요.

유서 깊은 전통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은 강릉 단오·명주예술마을과 임실 필봉굿 예술마을, 안성 남사당 예술마을, 담양 생태예술마을이예요. 이 책이 가진 놀라운 힘 가운데 하나는 예술마을을 품은 지역의 바탕 정보를 꼼꼼히 찾아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남사당 예술마을을 이야기하며 마을이 가진 여러 면모

에 대해, 예술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를 풀어내주기도 해요. 신명의 공동체로서 사람, 일상 공간의 전복으로 낯설어진 공간, 민초들의 풍자와 해학이 넘실대는 정신, 이렇게 사람·공간·정신 세 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예술마을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요. 지역마다 매개자의 역할을 손에 꼽기도 해요. 어디든 오래오래 피워낸 수만 갈래 땅과 사람의 자취를 이끌어내, 새로운 무엇과 연결 짓는 존재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살피요. 담양 생태예술마을에서 도드라지는 매개자로 향토사 전문 책방을 운영하는 ‘이목구심서’ 전교필 선생같이요.

특화된 예술 장르를 간직한 예술마을에서는 통영 윤이상음악마을부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 평창 계촌 클래식마을, 원주 춤·그림책마을, 산청 큰들마당극마을로 이어져요. 음악, 연극, 클래식, 춤과 그림책, 마당극 같이 마을이 특별히 주목하는 예술 장르로 마을 이름을 붙여 예술마을마다 특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책과 마주하며 처음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예술과 마을을 합쳐놓았을 때,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가진 저마다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쉬울까, 하는 근본 질문 말이에요. 큰들마당극마을에서 그 풀이를 엿볼 수 있었어요. “예술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살면서 예술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이 공동체이고, 공동체는 차이가 만들어진 ‘개인들의 집합적인 배치’이다.”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에도 한 달 한 번 칭찬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전체 월례회의, 나 전달법, 멘토와 대화, 단짠놀이를 통해 ‘유지보수’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눈물겨웠어요. 특히나 3년의 팬데믹을 통과하며 예술이라 이름 붙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여곡절 속이었는데, 그 안에서 더 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그들만의 공동체성에서 살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장은 조선소 배후지에 꽃핀 부산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 도심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성북예술마을, 지식 예술 생활이 선순환하는 파주 문발동 인문예술마을, 제주 하례리 정령의 예술마을로 이어져요. 주민들 스스로 품을 들여 이룬 마을이며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창의 예술마을들이예요. 이 장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이 불러오는 소외현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찰이 눈에 들었어요. 예술가들이 외지인처럼 화려한 예술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



(위) 아름다운 미아리고개 친구들(아미고)을 결성해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래) 계촌초등학교 전교생이 계촌 별빛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계촌 클래식마을.

거나 마을 속속들이 여행객들의 포토존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대상화하고 만다면 그것도 ‘예술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속 깊은 살핌을요. 그런 의미에서 감천 문화마을, 동피랑 벽화마을과 다른 결로 짚어준 깡깡이 예술마을 사례는 의미심장해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기나긴 여행이 막을 내렸어요.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술마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표가 생겼구나 하며 어떤 기대도 스멀거려요. 이 책은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동체를 안내하는 나침반이예요. 예술마을마다 그곳에 깃든 사람과 공간, 정신의 깊이를 역사에서 땅에서 사람에게서 발품으로 찾아내 증계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덮으며 다시 읽은 펴내는 말에 저자들이 새로 정의한 예술마을이 마음에 꼭 박혀요. “시간의 주름, 확장하는 공동체, 환대와 우정이 교감하는 곳, 일상을 낯설게 하는 곳”으로서 예술마을 말이에요.

이대건_ 책마을해리 촌장

예술마을의 탄생
이동연, 유사원 지음 / 408쪽
18,000원 / 마리북스



동네책방동네도서관 2023년 5월호 통권 138

발행인 한상수 편집인 조지연 취재·편집 남우정 디자인 강현정 제호 디자인 정병규 행복그림책연구소 정병규 행복한책방 권경선 배홍숙 경영지원 홍병일 배진영
도서사업 이범국 백정수 권가인 김성재 조현숙 김명만 조재훈 사회공헌 손수정 김근영 신설화 기획위원 구선아 박미숙 박소희 백원근 이권우 이동선 이은주 임후남 조규주 조은희 최지혜
등록일자 2011년 7월 21일 등록번호 파주 라00009 편집부 031-943-7568 정기구독·광고 031-943-7565 사회공헌 031-943-7560 도서사업 031-943-7563 Fax 031-944-7569
누리집 www.morningreading.org 이메일 bookreading@morningreading.org 카카오톡 채널 행복한독서 카카오프렌즈 @happyreading 페이스북 www.facebook.com/beehtreedongne
발행처 (사)행복한아침독서 주소 (1089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1, 현해프라자 6층 모바일 앱 행복한독서 행복한아침독서 도서관 전문 쇼핑몰 www.happylibmall.co.kr

(사)행복한아침독서 사람과 책을 잇는 독서운동·도서관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책으로 일구는 행복한 세상을 바라며 『월간그림책』, 『월간아침독서』, 『동네책방동네도서관』을 발간합니다.

구독 및 배포 안내 『동네책방동네도서관』은 전자잡지로 구독을 원하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책방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자잡지(PDF) 연간 구독료(연12회 발간) 15,000원 입금 기업은행 496-002290-04-055(사단법인행복한아침독서) 동네책방·도서관 무료구독 신청





막막한 기분이 시나브로 환해지는 책방

오후의소묘는 2019년부터 주로 예술 분야 그림책을 펴낸 작은 출판사지만, 이전에는 커피와 책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이기도 했다. 너그러운 본다면 서점의 한 형태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 서비스 이름이 '월간소묘'였고 이를 전신으로 지금은 매달 책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내는 '월간소묘 : 레터'라는 이름의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책을 펴내는 일만큼 편지 쓰는 일에도 진심인데 레터를 띄운 3년 동안 여러 연재 코너가 생겼다 사라졌지만 독립서점 탐방기이자 산책 자랑 코너인 '소소한 산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그간 레터를 통해 소개한 서점이 30곳 남짓, 달에 한 번은 꼭 서점엘 간다. 서울을 비롯해 강릉, 고양, 구미, 대전, 인천, 속초, 제주까지. 그 서점들 모두 아끼지만 이 원고를 청탁받을 때 쓰여있던 '자주 방문하는'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 곳은 사실 손에 꼽는다.

오후의소묘 사무실은 서울의 은평구에 자리하고 있다. 독립서점 추천검색 서비스인 '동네서점지도' 기준으로 은평구의 인근인 마포구는 독립서점 57곳, 종로구는 34곳, 서대문구는 17곳이 나온다. 은평구는? 7곳. 그나마도 독립서점이라기보다 종합서점에 가까운 지역 중대형서점, 헌책방, 공유 오피스 개념의 북카페, 카페 내의 숨인숨인 서점이다. 그러니 독립서점다운 곳은 3곳 정도라 할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직 이곳에 등록되지 않은 숨은 서점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오후의소묘와 지적 사이인 '책방 시나브로'.

독립서점이 척박한 은평구에 어느 날 새 서점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심지어 오후의소묘 (little cat)와 독립자도 같은 서점의 영문명 'little by little' 덕분에 가보기도 전에 이미 친근감이 형성되었다. 'little'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곳이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적 없었기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예감은 틀리는 법도 없다.

직접 가본 구산동의 네 평 서점은 식물과 패브릭이 공간에 생기와 온기를 더하고 있어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선 것 같았다. 인테리어와 큐레이션에서 식물과 커피와 여행

을 사랑하는 책방 주인의 취향이 단순해 전해졌다. 무엇보다 그림책이 전면으로 나란한 두 서가는 이 책방의 시그니처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세상에, 거기엔 우리 책들 대부분이 꽂혀있었다! 고마움과 친밀함으로 뭉클해진 사이 책방 주인이 차를 건네주었다. 겨울 끝자락이었는데 순간 봄이 당도한 양 향긋하고 따뜻해졌던 것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지난해 늦가을 책방이 응암동으로 이사를 왔다. 신이 나서 그만 작게 소리를 질렀다. 좋아하는 책방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토록 벅차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주변에 출판사도 동료도 없이 섬처럼 일하는 데에 몹시 익숙해졌고 그것이 편하기도 했거늘. 어쩌면 외롭기도 했었는지 이웃이, 동료가 생긴 것만양 든든하고 기뻐다. 더군다나 책방 시나브로의 소개글에는 "자연, 어른동화를 중심으로 삶의 여유를 주는 책과 기념품을 판매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오후의소묘는 "작고 짙은 온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삼고 그림책과 에세이를 펴낸다. 곁이 닳은 친구 같고 자매 같다.

책방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주인의 취향이 있고 그 공간을 채우는 분위기가, 손님이, 이야기가 있다. 응암동으로 옮겨 시즌2를 맞은 시나브로는 전보다 훨씬 넓어졌지만 아늑함은 그대로이고 아이와 반려동물 모두 환영하는 곳으로 책방 앞은 놀이터이며 환한 낮이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 커피에 진심인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는 드립커피, 차와 맥주도 책과 함께할 수 있

다. 바쁘게 돌아가는 날들 속에서 이곳에 들어설 때면 잠시 여행지에 온 기분이 된다. 몸과 마음이 한 뼘 쉬어간다.

또 감성 그림책 모임을 비롯해 독서 모임뿐 아니라 영화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열린다. 이곳에 서점이 없었다면 서로 마주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을 점점이 흩어져있던 이들이 책을 매개로 한 공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만든 책들을 봐주고 내가 좋아하는 세계를 함께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확실히 거기에 있다.

그리고 나 또한 곧 그 자리에 함께. 깊어지는 봄밤, 시나브로에서 우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준비하는 마음이 잔뜩 설렌다. 바로 그날 함께 읽을 그림책 『세상 모든 밤에』(세실 엘마 로제 글 / 파니 뒤카세 그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한밤에 불을 밝히는 오두막이라면, 우리는 이 공원 안에서 아주 안전하겠지.

세상 모든 곳을 잎 가득 달린 나무들이 뒤덮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다시는 길 잃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야.”

한밤에 불을 밝히는 오두막. 동네책방은 그런 존재이리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책을 만들고 원고와 편지를 쓰는 이 시간, 가까이에서 누군가 책을 펼치고 읽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막했던 기분이 시나브로 환해지곤 한다.

참, 이 책방에 대해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릴 뻔했다. 아주 귀엽고 멋진 고양이 리코타가 종종 서점을 지키기도 한다는 것. 출근길에 서점에 들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니. 이 무슨 행복한 업무 환경인가 말이다. 동네서점지도에도 제보를 했으니 이 글이 소개될 즈음엔 이제 은평구 독립서점 8곳이 되겠다. 팬스레 뿌듯하다.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25길 11-1 1층
- 연락처 : 0507-1356-1078
- 인스타그램 : @littlebylittlebook

지우_오후의소묘 대표

노랑 상상 블로그 blog.naver.com/yyjune3
SNS instagram@_norangsang

평범했던 일상 속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김주현 작가의 마법 상담실 3부작!

★상상을 굽는 빵집★ 출간 예정★

김주현 글 · 모예진 그림 | 값 10,000원

'시간을 굽는 빵집'에서는 소중한 순간을 맛있는 빵으로 맛볼 수 있어요!

김주현 글 · 모예진 그림 | 값 10,000원

상처 입은 마음에 웃음꽃을 피우는 신비한 '말의 정원'으로 초대해요!

김주현 글 · 심보영 그림 | 값 11,000원

알록달록 매력적인 목소리가 가득한 '목소리 연구소'에서 만나요!

내 마음에 나를 들이는 시간, 나를 찾아 떠나는 나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한동안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다. 하루를 해치우듯 살다 보니 얼마나 걸어왔는지, 어디 향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책방에 오도카니 앉아있다고 보면 나를 향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몸짓을 불렀다. 그러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딘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닿았다. 그렇게 내 마음에 나를 들이는 시간, 나를 찾아 떠나는 북클럽 '나들이'가 시작됐다. 우리는 불리고 싶은 닉네임을 알려주고 서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많을 테니 굳이 이름이나 나이, 직업을 앞세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진짜 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규영의 『희망을 버려요』로 꿈꾸고 바랐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다. 식도 깊숙이 손을 넣어 벌어진 판도라 상자 속 오래된 희망들을 하나씩 버린 굴씨처럼, 우리도 각자의 묵은 희망을 소개하고 털갈이하듯 털어냈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을 버린진 않았다. 근처 시장에서 사 온 귤을 1인당 두 개씩 나눠가지고, 그중 하나에는 아직 버릴 수 없어 냉장고에 조금 더 넣어두고 싶은 희망을, 또 다른 하나에는 빈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희망을 새겨넣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꼭꼭 씹어 먹어 소화했고, 어떤 이는 소중하게 집으로 가져갔다. 한 회원은 작은 쓰레기통을 보여주며 앞으로 묵은 희망을 주기적으로 비울 거라고 했다. 다른 회원들도 마음에 드는 쓰레기통을 장만해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김찬호의 『모멸감』으로 한국 사회에서 존엄을 지키며 생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모멸감'을 저마다의 해석으로 다시 정의했다. 그중 '작은 힘으로 나와 당신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라고 했던 회원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타인에게 받은 모멸감, 사회구조로 인한 모멸감, 내가 타인에게 준 모멸감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다 보니,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힘으로 우리는 참 많이 무너졌었다.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을 그토록 주고

받았을까. 우리는 역지사지로 부족하니 '역지감지'하며 모델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며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모멸감』의 표지를 한 걸음 멀리서 보면 시무룩하게 입꼬리를 내린 사람과 비열하게 웃고 있는 듯한 사람의 표정이 보인다. 혼자 읽었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며, 가지고 있던 책을 앞뒤로 돌려가며 한참이나 둘러보던 회원도 있었다. 표지를 비롯해 책 속, 유주환 작곡가의 음악과 여러 작가의 그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중 오귀스트 로맹의 「대성당」을 패러디하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손모양을 만들며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의 손을 내밀어 마음을 모으면 우리의 존재는 더 높은 세계로 고양된다는 그 뜻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최진영의 『내가 되는 꿈』 속 태희를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봤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에는 자꾸만 웃음이 났다. 과거에 만났던 어른을 떠올릴 때는 주로 속상했던 일을 꺼냈는데, 서로의 편이 되어 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지나간 시간을 살핀 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끔찍합니다"라는 문장의 '그런 사람'을 빈칸으로 바꿔 채워보았다. 우리는 확인하는, 냉소적인, 비겁한, 미루고 미루다 미련해져 버린, 양보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있었다. 각자 빈칸을 채운 다음에는 문장을 소리 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그 정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정답은 지문 속에 있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지문 대신 시간, 실수, 침묵을 채워 넣던 태희처럼, 우리도 정답을 찾아 넣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소제목이 -, +, ÷ 로 되어있는데, 작가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저마다의 해석에 따라 작품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도 참 재밌었다. 또 아티스트 박민준의 마르티시카 그림 표지와 "내 안에 갇힌 나를 꺼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 봤자 나는 나겠지. 마르티시카처럼 나는 계속 나일 뿐이지"라는 문장도 연결 지어 살펴봤다. 소설

을 읽을 때는 허무하게 읽었던 문장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읽었을 때는 달리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김규림, 이승희의 『일놀놀이』를 읽고 자신을 지키는 일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자신을 브랜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들은 왜 재미가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될까, 왜 우리 나이가 되면 장래 희망을 묻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과 놀이와 관련된 25개의 단어를 뽑았다. 우리는 눈을 떠 잠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재택근무, 덕질, 시간 등 저자의 단어를 빌려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곤 어떻게 하면 일과 공생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했다. 저자들처럼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부터 마감 정하기, 의미와 가치 찾기, 출퇴근 시간 활용하기, 새로운 도전하기 등 각자 하나씩 이야기했을 뿐인데 일과 공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 작품을 읽고 공감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각자 질문 하나씩을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만의 리추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은? 하나같이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질문이었다.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함께 찾아냈다.

저자 이승희는 회사의 소속을 바꿀 때마다 자신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소개가 전부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남들이 불러주는 나 대신 내가 부르고 싶은 나로 채운 표현을 선택했다. 우리도 북클럽 나들이를 마치며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이름 앞에 달 소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다" 하고 마무리 인사를 나눴다. 북클럽 나들이는 오프라인 버전과 온라인 버전으로 총 열두 분과 함께했는데, 발견하는 사람, 귀여운 겁쟁이, 버둥거리며 성장하는 사람, 일하며 공부하는 사람 등 그들의 소개 멘트를 듣는 내내 든 생각은 하나였다. 아! 이제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나들이가 시작됐구나!

이을_북클럽 '나들이' 회원, '책방이올시다' 책방지기

뉴필로소퍼는 1월, 4월, 7월, 10월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일상을 철학하다

NewPhiloSopher

KOREA

매일매일의 삶을 성찰하는 생활 철학 잡지

뉴필로소퍼는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을 철학합니다.
뉴필로소퍼는 생활세계를 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뉴필로소퍼는 인문학 열풍을 견인하는 새로운 인문·철학 잡지입니다.

정기구독 신청 www.badabooks.co.kr
1년 구독료 50,000원 | 문의 02-322-3575
팩스 02-322-3858 | 이메일 badabooks@daum.net

정기구독 바로가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상 속 책과 문화의 가치를 전하다

따스했던 올해 3월, 꽃이 피는 계절에 서초구립내곡도서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시간 발자취를 따라가며 도서관의 성장을 함께 응원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재미있는 마술 공연부터 포춘쿠키 뽑기 행사까지, 참여하는 남녀노소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폈다. “집과 가까운 곳에 내곡도서관이 있다는 건 축복” “우리 마을의 보물, 내곡도서관 앞으로도 잘 이용할게요, 고맙습니다” 등 축하하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가 쏟아졌다. 이렇듯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주민들의 메시지는 도서관과 함께한 지난 5년의 시간을 엿보게 해준다.



도서관 전경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내곡도서관은 2018년 전국 최초 ‘마을결합형학교’로 추진된 내곡중학교와 함께 건립되었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하나의 교육공동체 속에서 어울리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협력파트’를 신설해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며, 소속된 주민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이뤄졌다. 현재 활동하는 45명의 주민들은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책 정리·멘토·홍보 등 도서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이다. ‘어서와! 클래식은 처음이지?’ ‘세계 문학 브런치 독서회’ ‘계묘년 명리학’ 등 예술·문학·철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능 기부와 함께, 소모임 ‘보태니컬 아트’ ‘영어 연구회’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내곡도서관은 내곡중과 함께 위치한 만큼 마을결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배려심을 키우면서 미래형 인재로 성장해나갔다. 도서관은 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이 그리는 마을 탐방로드’ ‘메밀꽃 달빛 문화야행’을 통해 청소년과 마을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대화의 장을 열고, ‘공간을 넘어서 상상력, 디지털 지구에서 놀다’로 오늘과 미래를 읽는 힘을 배우면서 실천하는, 지역 기반 미래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청소년의 독서 능력 함양 및 주제성 강화를 위한 ‘독립출판물 만들기’ ‘북트레일러 만들기’ 등 학교와 마을을 잇는 차별화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초50플러스센터,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연결하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다

오늘날 내곡동의 대표 문화 향유 시설로 자리 잡기까지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내곡도서관이 문을 닫은 것이다. 개관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용자와의 긴밀한 연결이 끊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던 도서관은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했다. ‘북 드라이브 스루’ ‘안심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24시간 대출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서초언택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온라인 영어 독서 플랫폼을 지향하는 DO:DREAM 사업, 창의·창작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시도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이용자들은 이런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하지만 내곡도서관은 이러한 관심에 안주하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생활 전반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달라진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돌파

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거리두기로 인한 대안 프로그램을 넘어서 온라인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살린 지속가능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다. 진행 형식과 내용 등 포맷을 바꾸면서 책을 이야기하고 뉴노멀 시대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찾았다.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간 ‘랜선책놀이’

이러한 도전에서 발굴해낸 ‘랜선책놀이’는 작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6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우수 혁신 프로그램으로 입증되었다. 랜선책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책과 영상, 활동 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아닌 야외나 집 혹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자유롭게 책을 읽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접수가 시작되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자정에는 눈에 불을 켜고 선착순 릴레이에 참여하는 양육자들의 열기로 매월 뜨겁다. 2022년까지 총 1,214명이 참여했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 8,996회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는 새로운 책과 영상, 활동으로 4기가 시작되었다.

랜선책놀이의 어떤 점이 이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일까? 처음에는 거리두기로 인한 반짝 인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영상을 녹화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러한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기획 배경부터 설계와 실제 운영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 이유를 찾아본다.



랜선책놀이 촬영

과학의 달 기념 제8회 여성과총 독후감 공모전

수학 하는 여자들

세계의 여성 수학자 30인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암호해독에서부터 로켓 과학에 이르기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열정을 불태운 30인의 여성 수학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건네는 힘찬 응원!

텔리시아 윌리엄스 지음 · 이충호 옮김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 152X224mm, 288쪽, 19,000원

참가 자격: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의 청소년

접수 기간: 2023년 4월 17일(월) ~ 6월 16일(금)

대상 도서: 《수학 하는 여자들》 포함 여성과총 출판 도서 18종 중 택 1

접수 방법: 여성과총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의: 02-565-3702, yskim1005@kofwst.org

과학의 달 기념 제8회 여성과총 독후감 공모전 참가 요강 자세히 보기

주최: KOFWST 한국여성과학

그림책읽기 중심의 온리원(Only-One) 콘텐츠

랜선책놀이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영유아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그림책'이라는 도서관의 핵심 콘텐츠를 설계의 중심으로 삼았다. 또한 주도적으로 독후활동이 가능한 5~7세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과 콘텐츠를 정했으니 이제 도서 선정을 할 차례다.

우선 그림책의 주제를 분류해야 한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사회성 향상 및 인지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여덟 가지(자존감·자아실현·가족 유대감·친구 관계·인식 개선·사회성·환경보호·창의력)로 구분하고,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분석하여 주제에 따른 도서를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독후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했다. 도서를 선정할 후에는 담당사서가 1차로 독후활동을 기획한 다음, 2차로 출연 강사와 함께 '독서 효과 향상' '유아 인지력 발달' '온라인 콘텐츠 적합성' '가족 유대감 강화'를 중심으로 적합성을 논의하고 보완했다.

모든 사전 단계가 끝나면 영상을 제작한다. 랜선책놀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출연 강사와 영상 저작권 및 영상 공개 범위 등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촬영 전까지 촬영 콘티와 대본을 출연자와 공유하고 전달 내용이 적절한지,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지 추가로 검토한 후 수정을 진행했다. 총 40편의 개별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크게 '책 소개·만들기&그리기·가족 놀이 방법 소개'로 나뉜다. 촬영이 끝나면 담당사서가 최종 편집 후 완성본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받아 갈 랜선박스를 제작한다. 랜선박스 구성은 '신청자 이름으로 대출한 주제 도서' 5권과 '개별 독후활동 재료'로 이뤄져 있다. 또한 가이 드 리플렛을 제작하여 세부 주제 설명과 키워드를 제공해 다음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 도서 목록을



랜선책놀이 4기 박스

함께 제공하여 그물 독서의 길을 열었다. 독후활동 재료는 도화지부터 스티커, 풀판지 등 필요 재료를 대량 구입하여 직원들이 함께 소분 작업을 진행했다. 랜선박스는 주제별 3개씩, 매월 24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용자는 내곡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주제의 랜선박스를 신청한 후 담당사서가 개별 발송하는 문자를 받고 박스 수령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한다. 이용자 이름으로 대출한 도서를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인증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도서는 가까운 서초구립도서관에 반납했다.

이용자 경험을 토대로 한 피드백 효과

랜선책놀이가 완성되기까지 내곡도서관에서는 시범사업 당시 미흡한 부분을 찾기 위해 이용자 경험 중심의 VOC를 수집·분석하고 피드백을 진행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영상콘텐츠 수를 8편에서 40편으로 확대, 연계도서 제공, 더 다양한 독후활동, 참여 기회 확대, 활용 기간 확대와 같이 이용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의 장점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 "재참여하겠다." 100퍼센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웃과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알려면서 자발적으로 홍보 채널을 넓히고, 이는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랜선책놀이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랜선책놀이를 선택한 이들은 그 이유로 자녀의 선호, 가정에서의 독서 라이프,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꼽았다. 더불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서 시간 활용, 편리성, 자유로움이 장점이라고 답했다. 재미·몰입·창의 활동으로 아이를 사로잡고 자유로움과 차별화로 보호자를 사로잡은 것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

랜선책놀이의 모토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다. 이는 365일 책과 함께하는 N-Kids(내곡키즈)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서관 저변의 확대에



사진 위부터 종합자료실 / 여흥방학 팩트체크 히어로캠프 /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드는 즐거운 미술 시간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독서진흥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고, 원스텝(One-Step) 가족 독서놀이로 이용자의 독서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차별화된 온리원 콘텐츠로서 앞으로도 내곡도서관 가족들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해나갈 것이다.

"내곡도서관이 있어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주민의 메시지는 내곡도서관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본다.

김명은_서초구립내곡도서관 사서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 저학년 일기 사진

일기 쓰기, 주제 글쓰기가 어렵다고? "야! 너도 글 잘 쓸 수 있어."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글감을 한데 모았어요! 주인공 민수가 1년 동안 쓴 일기와 자세한 첨삭 노하우가 담긴 엄마의 편지를 읽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 실력 up!! 자신감 쑥쑥!!

박은정 글 | 시은경 그림 | 336쪽 | 20,000원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통합교과 연계 도서



괜찮아, 우리 모두 처음이야!

★ 1학년 1학기 볼 1. 학교에 가면



너랑 친구 안 할래!

★ 2학년 1학기 볼 1. 알쏭달쏭 나



어서 와, 도서관은 처음이지?

★ 2학년 2학기 가을 2. 가을이 어디 있지

개암나무 TEL 02)6254-0601, 02)6207-0603 | FAX 02)6254-0602 | 블로그 http://blog.naver.com/gaeamnamu

동네책방동네도서관 138호 2023년 5월 | 5

감자로 생각해보는 먹거리 이슈



야스미나와 감자 먹는 사람들

볼테르 마나에르 지음 / 이희정 옮김 / 144쪽 / 14,500원 / 밝은미래

이 책의 주인공 야스미나는 어린이 요리사다. 야스미나는 감자튀김 전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빠와 단둘이 산다. 야스미나는 가족의 요리를 책임지고 날마다 아빠의 도시락까지 싸준다. 그냥 요리를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 요리사 수준이어서 야스미나가 만든 아름다운 요리를 책으로 보고 있으면 실제로 먹고 싶기까지 하다. 야스미나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아빠가 부러워질 지경이다. 야스미나 요리는 채식 요리로 더 특별하다. '쿠스쿠스와 당근, 서양배와 호박으로 속을 채운 가지 요리' 같은 이름의 요리를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벨기에에 사는 유색인종인 야스미나의 가족은 가난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저금통 다섯 개에는 공과금, 집세, 대출1, 대출2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여윌 돈 저금통엔 천 원도 없다. 사정을 아는 야스미나는 아빠에게 식비를 요구하지 않고 '야생 식육식물' 책을 들고 다니며 채집한 식물과 이웃들이 텃밭에서 길러 나누어주는 농산물로 식탁을 꾸민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텃밭 농사꾼인 시릴 할아버지와 마르코 아저씨가 빌려 쓰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회사에 팔려버리고, 회사는 그 땅에 감자만 잔뜩 심는데 그즈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회사가 만든 감자 스낵을 한 입이라도 먹은 사람들은 중독이라도 된 듯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그것만 찾는다. 그러니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채소와 다른 식재료가 전부 사라지고 감자 스낵만 잔뜩 쌓여있다. 이 책은 이렇듯 거대 식품 회사가 자영농의 유기농업이나 식품종의 다양성을 파괴하며 식량 자원을 독점하는 방식을 생동감 넘치는 서사와 이미지로 풍자한다. 이야기가 이쯤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거대 식품 회사의 음모를 확대하고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감자 스낵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더 큰 문제는 통제력을 잃고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개처럼 코를 쿵쿵대며 냄새를 맡고, 땅을 기어다니다고, 이리저리 물러다닌다. 급기야 야스미나의 아빠까지도 이상행동을 하자 야스미나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 감자 스낵의 비밀을 파헤치려 나서고 결국 해결책을 찾는다.

식품 회사는 과거 연구원 아마랄리스가 발명한 기계를 빼앗듯이 인수해 기계의 치명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감자 스낵을 만들어 판 것이었다. 아마랄리스의 기계는 사막에서도 자라는 선인장 옥수수, 양배추처럼 빨리 자라는 물고기, 나무만큼 크고 광합성을 하는 젓소를 만드는 기계다. 언뜻 터무니없는 공상 같아 보일지 몰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위험성을 어린이 독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한 설정으로 해석된다.

이 그래픽노블은 거대 식품 회사의 독점으로 위협받는 식량 안전이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을 채식 요리사인 야스미나의 모험을 통해 실감 나고 재미나게 보여준다. 신념이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성을 알리는 걸 잊지 않는다. 텃밭에 농약을 뿌리는 시릴 할아버지와 "동식물이 조화롭게 사는 친환경 밭에는 농약이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뿌리는 농약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라고 말하는 마르코 아저씨의 끝없는 실랑이 또한 무조건적 찬성 혹은 반대를 떠나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가꾸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이끄는 장치로 보인다.

김유진_ 아동문학평론가, 『나는 보라』 저자

삶을 연민하지 않고 직시하며 슬픔에 건네는 온기



슬픔의 방문

장일호 지음 / 256쪽 / 15,000원 / 낮은산

"책장을 펼치면 누적된 지혜가 고스란히 누워 있었다. 행간에 숨기도 하고, 행과 행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세상과 몇 번이고 거듭 화해했다. 무언가를 기어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9쪽)

"모르겠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연결된다." (165쪽)

"아버지는 자살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은 충격적인 현실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책은 슬픔에 멈추지 않는다. 슬픔에 압도되지 말고 오히려 그 슬픔을 마주하고 드러내기를 권유한다. 삶을 연민하지 않고 직시하며 슬픔에 온기를 건넨다.

저자 장일호는 『시사IN』 기자이기도 하다. 책을 읽기 전 나는 이 책이 저자가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일 거라 예상했다. 장일호 작가가 책에서 언급하듯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더 자주 써야" 하는 『시사IN』에서의 경험이 담긴 '슬픔의 방문' 취재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작동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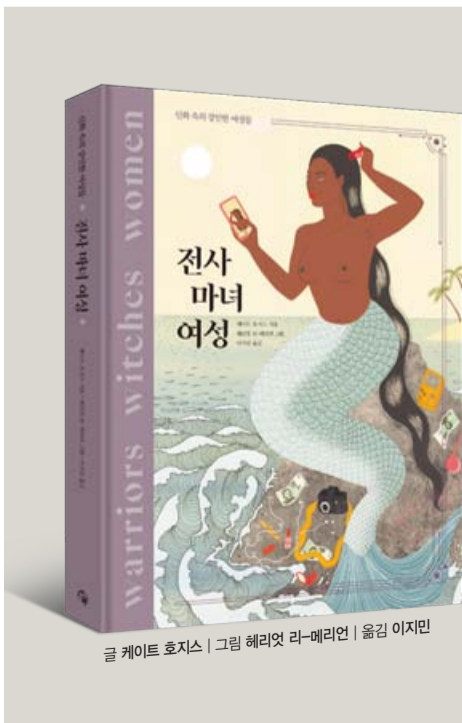
하지만 책은 장일호 기자의 오롯한 삶의 기록이다. 장일호 기자는 입사 전 자기소개서에 김애란 작가의 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봐 무릎이 떨리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러나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영원한 화자』)를 경유한다. 오랜 '부재' 속에서 스스로에게 응답하고자 했던 작가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사건 앞에서, 책 속의 말들이 다 무너지는 걸 목도하고도" 책을 통하여 다시 삶과 접촉해 나간다.

"책을 펴자마자 쏟아진 문장 앞에 나는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 장일호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슬픔이 밀려 들어와 마음 둘 곳 없이 서성거릴 때" 김애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를 시작으로 '두근두근 내 인생', '칼자국'을 경유하여, 개브리얼 제인의 '비바, 제인', 이금이의 '유진과 유진', 강화길의 '다른 사람', 아톨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등 60여 권의 책을 거치며 결국 우리들에게 용기의 말을 건넨다.

좋은 삶은 무엇일까. 삶의 비참과 고독 속에서, 때로 힘들고 참담한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설여질 때 『슬픔의 방문』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그 슬픔을 함께 꼬집어 말해도 된다고 큰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아버지의 부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나 질병 등 "내가 경험한 폭력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를 둘러싼 풍경도 달라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당한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 그리고 마주하며, 결국 글쓰기를 통해 고통을 꺼내들면서 나 역시 슬픔을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때로 길 끝에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렇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싶다. (에세이, 일반)

임인자_ 책방 소년에서 대표



"우리는 당신들이 태우지 못한 마녀의 자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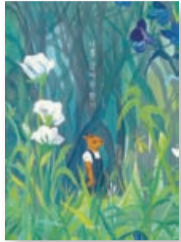
힘과 지혜를 가진 여성들은 왜 마녀로 몰려 불태워졌나?
딸과 함께 정치적으로 올바른 신화 읽기

오늘날에도 정치하는 여성은 '메두사'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여성은 '하르피아이'로,
화장하고 꾸미는 여성은 '이세벨'로 불리곤 한다.
이 전혀 다른 여성들의 공통점은 전부 '마녀' 혹은 '악마'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강인한 여성들을 만나보자. 책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을 비롯해 마녀와 정령, 피를 빨아먹는 괴물, 탐욕스러운 반인반세, 부두교의 여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와 문화권에서 선별해낸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왜곡되고 금기시되어 왔던 힘과 지혜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며, 오랜 시간 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그려져 왔던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새롭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이다.



삶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다



나를 감싸는 향기

이수연 지음 / 216쪽 / 22,000원 / 여섯번째봄

『나를 감싸는 향기』 참 아름다운 제목이다. 독자는 제목을 읽고 멋진 장면을 기대하며 책장을 펼칠지 모른다. 그러나 내용을 알면 이 제목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작품 속 인물은 결코 향기로운 냄새만 맡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은 현재를 보지만 우리의 청각이나 후각은 때때로 과거를 소환한다. 그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며, 후각이나 청각을 통해 비로소 떠올려지는 다소 특별한 기억들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찾아와 일방적으로 나를 과거, 어느 시절로 데려다 놓기에 후각과 청각은 무례한 안내자다.

이 작품에서 화자 '나'가 소개하는 이야기의 주인공 홍당무는 냄새가 불러내는 기억을 더 예민하게 느꼈으리라. 홍당무의 직업이 조향사라는 의미는 바로 그가 후각이 예민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 홍당무의 어린 시절을 지배한 냄새는 악취다. 아버지가 매일 밤 풍기던 알코올과 니코틴 냄새와 방치된 집 안 곳곳에서 피어오르던 냄새. 악취의 나쁜 점은 냄새 자체가 거북할 뿐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강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의 아동학대자는 부모이며 학대의 주요 장소는 집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구타나 언어폭력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영양실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어린이를 깨끗이 씻겨주지 않거나 더러운 환경에서 방임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집 안의 악취는 어린이가 방임된 존재임을 주위에 인식시키는 명확한 증거다. 평범한 일상에서 소외될수록 우리는 악취와 가까워진다.

작가는 악취 나는 환경을 어두운 먹색으로 표현한다. 반면 성인이 된 홍당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조향사가 되어 향기를 담는 시간은 초록의 풍경으로 가득하다. 이 작품의 반전은 아름다운 향기를 모으게 된 조향사 홍당무가 향기의 성분이 아름다운 재료로만 구성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장면이다. 향수는 다양한 냄새가 나는 원료들의 농도를 조절하여 만들어진다.

이수연 작가는 전작 『내 어깨 위 두 친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작품에서 주인공 토끼는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표범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와 헤어지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존재라도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한다. 이번 작품에서도 홍당무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감싸 안으며 의인화된 인물을 활용하여 폭력이나 트라우마 같은 어두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과거의 아팠던 시간을 포용하는 것은 용서와는 다르다. 그것은 두 손을 모으듯, 두 겹의 삶을 모으는 기도의 자세다. 과거와 현재의 삶을 모두 거두어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문학에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아이러니로 가득하기 때문이듯 이 작품은 우리를 감싸는 냄새가 팬시하고 달콤하지 않을지라도 도리어 특별한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청소년문학, 일반)

오세란_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기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문학의 세계』 저자

마침내 연결된 어머니와 딸의 언어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하재영 지음 / 272쪽 / 16,000원 / 휴머니스트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딸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타인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신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가까우면서 낯선 어머니라는 타자를 이해하면 우리는 가슴에 남은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다른 세계의 언어를 배우는다는 뜻이다. 딸의 세계와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어머니의 세계에는 새로운 말과 침묵이 가득 차 있다. 어머니는 한평생 살면서 자기 시간 속의 햇빛과 그늘을 통해 고유한 무늬를 그 말에 새겼다. 딸은 그 세세한 나날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다. 어머니가 살아낸 유일한 시간과 그만이 했던 선택을. 때로 사회의 편견과 구속으로 좌절하고 제약당했지만, 곳곳이 살아낸 힘을 알게 된다. 어머니가 선택한 시간은 딸의 시간과 맞물리며 이어진다.

한 사람의 삶의 언어를 알게 되면 그 속내의 견고함까지 느끼게 된다. 무력하거나 평범해 보이는 자리라도 그 삶을 버티게 한 것은 끝없는 책임감과 자기 존중감이었다. 그 존중감과 진심이 다음 세대에 물려준 유산이 된다. 어머니는 자기 말을 처음으로 경청하는 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딸은 묻혔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된다. 다른 사람처럼 실패하고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시대와 한계 속에서 이곳까지 걸어왔는지 알게 된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야기와 딸의 경험과 해석이 번갈아 나온다.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법, 경험의 연결점을 찾는 법,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역사를 쓰는 법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어머니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지만 주체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 급작스러운 결혼을 했고,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 시댁과 가족을 돌보며 살았다. 집에서 어머니는 자기 자리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생각과 판단의 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자의식을 지켰다. 딸은 어머니의 돌봄과 훈육 속에서 부당한 구속과 억압을 느꼈다. 당당한 자신을 “깎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성차별적인 환경에서 비롯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시대가 바뀌며 자기 육아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반성을 한다. 딸은 결국 아무것도 자신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고 선언하며 자유를 찾는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네게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승낙했다. 딸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완전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 살면서 마주 보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 앞에, 침묵 속에 가려진 갖가지 진짜 표정 앞에 섰다. 딸의 삶은 어머니의 삶과 이어져 있다. 원망과 몰이해, 기쁨과 슬픔도 엇갈려 있다. 실타래를 완전히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어머니의 이야기다.

작가의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의식이라는 내면을 지켰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위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가 소리 없이 간직한 언어가 결국 딸이 삶을 버티는 자긍심과 용기로 이어져 전해졌다. 어머니와 딸의 언어가 마침내 연결될 때 여성사는 복원된다. (에세이, 일반)

안미선_ 작가, 『그때 치마가 빛났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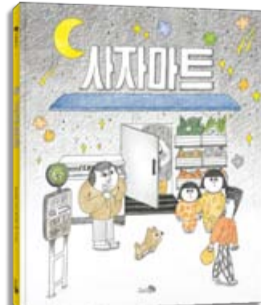
탐욕과 공존, 두 갈래 길 위에서



박종진 글 | 오승민 그림

살기 위해 달리는 표범과 사슴,
도구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위해 달릴까?

“주인이 사자 같아서, 무섭지 않아요?”



김유글 | 소복이 그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자,
아무도 보지 않던 사자 씨 마음이 보여요.

삶이라는 캔버스를 채우는 화가의 여행



이세 히데코 글·그림 | 황진희 옮김

그림책 작가로 40년을 살아 온
이세 히데코의 인생관을 담은 걸작.

Tel. 02-6953-5243 | Fax. 031-622-9413 | Blog



어린이·청소년



꿀라와 별별 직업

테리아에바 소피아 글·그림 / 40쪽 / 14,000원 / 계수나무

학교에서 직업에 대해 배운 꿀라는 가족들의 직업을 알아보기로 한다. 곤충학자, 번역가, 소설가의 직업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붉은 유채꽃

정도상 글 / 휘리 그림 / 192쪽 / 13,000원 / 노란상상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4·3 사건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 보여주는 동화다.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과 그로 인해 부모를 잃고 집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그렸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를 위한 아프리카 안내서

김 차카네차 글 / 마요와 알라비 그림 / 박미준 옮김 / 96쪽 / 22,000원 / 원더박스

아프리카를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자연과 인물은 물론 오늘날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까지 안내한다. 놀라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 극과 극이 공존하고 다양성으로 packed 경이로운 땅 아프리카로 초대하는 입문서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꽃님 지음 / 208쪽 / 13,500원 / 우리학교

한밤중 저수지에서 가지런히 놓인 소녀의 흰 운동화가 발견되고, 함께 있던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누군가를 막 좋아하기 시작한 십 대들의 풋풋한 마음과 그 마음 뒤에 숨겨진 쓰라리고 위태로운 감정이 미스터리한 사건과 맞물려 긴장감 넘치게 폭발한다.

개가 보는 세상이 흑백이라고?

매트 브라운 지음 / 김경영 옮김 / 200쪽 / 14,000원 / 동녘

‘낙타는 흑에 물을 저장한다’ ‘벌은 침을 쓴 후 죽는다’ 등 동물들에 관한 거짓 속설들을 들려주며 동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동물에 대한 편견을 시작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까지 다양한 동물계 전반에 퍼져있는 동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나와 가짜 뉴스

네레이다 카리오 글 / 알베르토 몬트 그림 / 임수진 옮김 / 116쪽 / 16,000원 / 너머학교

가짜 뉴스를 어떻게 감별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국제기관이 제시한 여러 단계의 촘촘한 검증법과 도구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과 스트리밍 등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역이미지 검색, 구글 지도와 시계 이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철학은 처음이야

박찬국 지음 / 224쪽 / 17,800원 / 21세기북스

자아, 인간, 삶, 사회, 우정 등 청소년들이 고민할 법한 주제들을 엄선해 철학이 삶과 일상에 밀접함을 느끼고 철학적 사고와 관점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면서 쉬운 언어로 철학 문제를 풀어간다.

고전이 왜 그럴 과학

이운근 지음 / 160쪽 / 15,000원 / 다른

낯설기만 한 과학 지식을 친숙한 문학작품과 연계해 전달한다. 전라가 춘향, 춘데레 점순이, 마성의 까투리처럼 이야기 속 인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며 흥미를 일깨운다. 책읽기의 문턱을 낮추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문학·인문·교양



꽃의 계절

에마누엘 케시르-르프티 글 / 레아 모프티 그림 / 권지현 옮김 / 100쪽 / 18,000원 / 지노

봄을 알리는 튜립,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떠오르는 해바라기, 바람의 꽃 아네모네 등 우리에게 친숙한 꽃 37종을 황홀한 색채로 소개한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시적인 글과 유용한 정보 그리고 마티스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삽화로 엮어 작은 설렘을 전한다.

오늘도 작은 책방에 갑니다

와키 마사유키 지음 / 정지영 옮김 / 164쪽 / 16,000원 / 그린페이퍼

고양이 책방부터 심야 책방까지 일본 전역의 책방 취재해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스물세 곳의 독립서점을 소개하는 서점 탐방 에세이다. 책방 대표나 직원을 인터뷰해 각 책방이 탄생한 비화나 운영 철학, 책을 선별하는 기준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오늘의 기후

노광준 지음 / 236쪽 / 15,500원 / 루아크

‘꿀벌 실종사건’부터 ‘탈원전 논란’까지 무심코 지나친 기후 뉴스들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조망한다.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실천을 이어가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슈테판 클라인 지음 / 유명미 옮김 / 352쪽 / 18,800원 / 포레스트북스

우리는 운명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불확실한 세계에 몸을 맡겨야 할까? 세계적인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인간의 삶은 우연이 만들어낸 사건들의 총합일 뿐, 우연은 운명보다 더욱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우연이 모여 오늘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

사이먼 반즈 지음 / 오수원 옮김 / 728쪽 / 33,000원 / 현대지성

약 천만 종에 이르는 동물 가운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물을 엄선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며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 동물 한 종 한 종 특유의 따뜻한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최신 과학에 근거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376쪽 / 18,000원 / 부키

마늘부터 초콜릿까지 친숙한 재료와 음식으로 경제와 관련한 고정관념과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가난과 부, 자유와 보호,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풀어냈다.

프리즌 서클

사카가미 가오리 지음 / 김영현 옮김 / 372쪽 / 17,000원 / 다다서재

새로운 교도소를 표방한 ‘시마네 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는 갇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회복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피해했던 죄와 마주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며 반성에 이른다. 일본 교도소 내부를 10년간 취재하며 대화와 연결의 힘을 전하는 르포르타주다.

뉴욕을 먹다

김한송 지음 / 296쪽 / 18,000원 / 따비

일상에서 즐기는 음식과 뉴욕에 녹아든 세계의 음식 그리고 뉴욕의 소울푸드를 소개한다. 뉴욕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그 유래와 배경, 역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며 세계의 문화를 끌어안은 중심 도시를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을 엿본다.